

현장 포커스

(주)롯데캐논

‘CBSF 2005 in Seoul’ 행사 개최 및 솔루션 시장 본격 진출 선언

롯데캐논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6월 27, 28일 양일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하드웨어와 연계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 주고 솔루션 기업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비즈니스 솔루션 포럼(CBSF 2005 in Seoul)’을 개최했다. 이날 캐논 고유의 ‘밈(MEAP: Multifunctional Embedded Application Platform)’이라는 플랫폼을 공개한 롯데캐논은 이 소프트웨어를 올 하반기부터 판매하고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와 제휴해 문서 작성·인쇄 등 디지털 복합기 기반의 사무 환경과 관련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나겠다고 밝혔다.

○○○ 취재 | 박지연 기자 |

롯데캐논(대표·김대곤)이 솔루션 복합기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고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솔루션사업으로 시장 영역 확대에 나섰다.

롯데캐논은 지난 6월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품 발표회를 겸한 행사(CBSF 2005 in Seoul)를 통해 솔루션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그동안 개발해 온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 제품인 ‘MEAP(Multifunctional Embedded Application Platform)’은 복합기 내장형 플랫폼으로 PC의 윈도우나 리눅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J2ME(Java 2 Micro Edition)’ 기반 플랫폼으로, 디지털 복합기 운영체제(OS) 바로 윗단에 결합돼 다양한 자바 기반 솔루션의 구동을 지원한다.

롯데캐논은 이날 MEAP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오피스 업무 보조·전자문서 변환·복합기 사용 이력관리·보안 기능 등을 탑재한 네 가지 소프트웨어도 함께 선보였다.

롯데캐논 관계자는 “디지털복합기는 과거 단순한 다기능 제품에서 현재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앞으로는 보안 및 맞춤형 솔루션으로 계속 진화 중”이라며 “금번 롯데캐논의 디지털복합기 솔루션은 PC용 솔루션 대비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사무효율 증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캐논 김치현 영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기 술로 개발한 고성능 레이저복합기(프린터엔진 기반) 제품군을 캐논 브랜드로 세계시장에 본격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일본 캐논과의 협의에 따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성능 레이저복합기를 지난달부터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며 “롯데캐논은 향후 캐논 브랜드 레이저복합기의 주 제조업체로 발돋움하여 내년부터는 연 200만대 이상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캐논은 레이저복합기 수출사업 및 솔루션사업



▶롯데캐논 직원이 솔루션 복합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등의 강화를 통해 올해 3,000억원 목표의 연매출을, 수 년 내로 5,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김대곤 사장은 “복합기 제품은 복사와 프린트·팩스·스캔을 하드웨어에 통합해 공간 절약을 목적으로 했던 1세대에

서 네트워크를 통해 문서 전달과 저장된 문서를 활용하는 2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하드웨어와 IT·솔루션을 모두 지원하는 종합 사무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김치현 영업본부장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두루 갖춘 오피스리더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터”

Q 'CBSF 2005 in Seoul' 행사의 성격과 개최하게 된 취지는?

A 'CBSF 2005 in Seoul(CANON BUSINESS SOLUTION FORUM 2005 in Seoul)' 은 롯데캐논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신개념 솔루션, 'MEAP' 을 출시한 것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MEAP 솔루션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개 및 시연, 신제품 MEAP을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MEAP전용 복합기(iR4570, iR3570, iR2870 시리즈) 등도 전시됐다. 일본 캐논사는 연 2~3회의 정기적인 솔루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제품 및 솔루션 출시 등의 이슈가 있을때 일본 도쿄를 비롯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된 캐논의 행사라는 점에서 뜻깊다.

Q MEAP에 탑재되는 솔루션의 특징은?

A MEAP은 복합기 내장형 플랫폼으로 PC로 비유하면 윈도우나 리눅스의 기능을 수행한다. 롯데캐논은 MEAP에서 실행될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들 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피스 업무보조기능, 강력한 전자문서

변환기능, 복합기 사용 이력관리, 보안 기능 등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바언어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어 언제든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맞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Web Browser를 이용하여 바로 복합기에서 설치 사용할 수 있어 단순한 하드웨어로서의 기능보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사무기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Q '솔루션 복합기' 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은?

A 솔루션을 PC마다 일일이 설치하여 소비자가 제품기능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종전 복합기와는 달리, 복합기 내부에 맞춤형 솔루션을 탑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PC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추가적으로 설치 또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또 전자문서의 기능도 대폭 보완했으며, 조작면에서도 동급기기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대형컬러액정터치패널을 장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Q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향후계획은?

A 현재 일본에서는 10여 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오늘 발표한 제품을 기본으로 향후 고객의 니즈에 적극 부응하는 솔루션을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매출의 30% 이상을 솔루션 부문으로 채워나갈 것이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롯데캐논이 단순한 장비업체가 아닌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모두 갖춘 진정한 디지털 오피스리더가 될 것은 물론 MEAP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디바이스도 향후 라인업을 통해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보다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6월 27일 'CBSF 2005 in Seoul'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사비전을 소개하는 롯데캐논의 김치현 영업본부장